

순천만습지, 대한민국 생태관광 중심 ‘우뚛’

순천만습지의 여름

순천만습지의 겨울

환경부 만족도조사서 ‘향후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속가능 관광 방향 제시”

순천만습지가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중심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 생태관광지역 방문객 만족도조사’에서 순천만습지가 전국 28개 생태관광지역 중 ‘향후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생태관광지 28곳을 대상으로 전국 2500여명에게 실시됐으며, 자연경관,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색, 재방문 의향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순천만습지는 자연환경 보전 우수성, 프로그램/해설 만족도,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문 희망 순위에서는 순천만습지는 전체 응답자의 17.6%가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제주 저지곶자왓(15.1%), 철원 DMZ(11.1%) 등 생태관광 대표지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가장 가고 싶은 생태관광지’로 등극했다.

순천만습지는 세계 멸종 위기종인 흑

두루미 절반의 서식지이며, 순천이 가진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도심 내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고, 조류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후에도 다양한 생태복원사업과 해설 프로그램, 흑두루미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순천만이 단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입증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자연을 지키고 배우는 ‘생태도시 일류 순천’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며, 순천만습지를 통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LOCAL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변건호 아티스트 토크 개최

오늘 함평군립미술관서

함평군은 23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변건호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연계 전시 변건호 작가의 ‘생명과 예술’ 기획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948년생인 변건호 작가는 금속 조형을 중심으로 생명의 생성과 소멸, 질서와 혼돈 등 근원적인 주제를 탐구하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사진과 평면 회화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특히 함평의 상징물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황금박쥐상’의 제작자이기도 한 변 작가는 이번 토크에서 작품에 담긴 생명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군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상의 군수는 “변건호 작가는 황금박쥐상을 통해 함평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준 작가다”며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작가의 삶과 예술관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며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서울시민 입맛 사로잡은 ‘고흥 유자라면’ ‘나주 삼색유산놀이’ 국립중앙박물관 무대 오른다

여의도서 1800여명 시식…“미식 콘텐츠 도시 확산”

고흥군은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진행한 ‘고흥 유자라면 시식 행사’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푸드트럭을 통해 현장에서 제공된 유자라면은 행사 첫날 600여명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우천 속에서도 150명이 방문한 2일 차를 지나, 마지막 날에는 무려 1200여명이 시식에 참여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준비한 재료가 조기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자라면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행사 현장에서는 유자라면의 재료나 구매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고, 고흥물에 입점된 제품을 찾는 시민들도 많았다. 고흥 특산물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높아지며, 단순한 시식 행사를 넘어 지역 농수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유튜브 3명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라디오 생중계와 현장 인터뷰도 함께 진행해 미



고흥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진행한 ‘고흥 유자라면 시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디어 노출 효과 또한 컸다. 행사 전반에 걸쳐 고흥군이 의도한 ‘고흥 유자의 새로운 활용’과 ‘미식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반응을 바탕으로 유자라면의 상품화와 함께 고흥 미식 콘텐츠의 도시 확산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시립국악단. 26일 공연

“나주 문화적 가치 홍보”

나주시 교유의 세시풍속이자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향연 무대에 오른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나주 삼색유산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삼색유산놀이는 조선시대 나주읍성에 살던 부녀자들이 산본과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식을 나누는 화합의 축제였다.

농번기를 앞두고 음력 4월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산놀이’ 또는 ‘유산’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은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를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져온다.

나주시립국악단은 삼색유산놀이를 현대적 감각을 입힌 마당극 형식의 공연으로 각색해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선보여왔다.



나주시립국악단 ‘나주삼색유산놀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국악 선율과 생동감 넘치는 연기, 관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나주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나주삼색유산놀이 공연 관람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종호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며 “삼색유산놀이와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연인 삼색유산놀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나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한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내달 한달간…총 100억 규모

여수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 15%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총 100억원 규모로 가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월별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를 통합해 5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지류는 7% 할인율을 유지하며, 30만원으로 구매 제한된다.

판매 완료 시에는 익일 오전 9시부터 기존 10% 일반할인으로 전환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대행금융기관(81개소)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조치는 ‘여수시 누리집’이나 지역상품권 앱 ‘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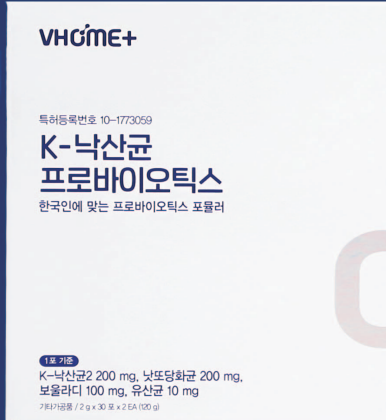
정기명 시장은 “이번 특별할인이 고물가로 힘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페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